

## “도정 곳곳 성장 · 행복 퍼뜨릴 것”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의회 임시회서 민선7기 도정 운영방향 제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 융복합 미래신산업 등 5대 목표 설정 · 발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제11대 전북도의회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민과 도의원들에게 민선7기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민선7기 앞으로의 4년은 지난 4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잘못된 관행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통해 도정의 곳곳에 성장과 행복의 기운을 퍼뜨리겠다”고 말했다.

민선7기 전북발전의 비전을 ‘아름다운 산하 융비하는 생명의 숲터, 천년전북’으로 정한 것은 “전북이 간직한 가장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잘 지키고 가꾸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새만금과 함께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천년을 이어 온 자긍심으로 새로운 전년을 향해 힘차게 웅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건강한 생명의 숲터를 실현코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도정 목표와 16대 핵심전략을 설정했다. 5대 도정목표 중 첫 번째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농장 조성 등 농업의 첨단기술을 활성화하여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시켜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농산어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을 통해 전북의 경제 체질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를 기술혁신성장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능형 신산업 육성과 연기금 · 농생명 기반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는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관광벤처창업, AR · VR · 홀로그램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신 여행체험산업 개발로 전라북도를 ‘여행체험 1번지’로 만들어 나가며, 지역의 특색과 스토리가 녹아 있는 마을의 작은 축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여 활성화 하고, 특색있는 문화체육시설도 동네마

다 조성해 나간다. 네 번째는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가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구축을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전북의 어디든지 살고 싶도록 ‘안전 · 복지 · 환경 · 균형’이 실현이 되도록 생활 속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도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생애주기별 · 계층별 소외없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혁신도시권, 새만금권, 동부권, 서남권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특히,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가옥의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가옥 3채를 모두 지정해야 하나 당시 “2채를 제외하고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느냐”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을 보존하는데 도민들의 협력을 끌어 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해제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며 전북 전역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16일 전북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의 복사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 “김상만 가옥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최훈열 도의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정당성 상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부안)은 제35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17.4.13)에 따라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일제강점하 빈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

족행위자로 판결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는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당초 지정사유는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 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시절

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촌 김성수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부안 · 고창지방의 특색,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 사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특색과 수법이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해야만 하는 정도에 까지 달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가옥의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가옥 3채를 모두 지정해야 하나 당시 “2채를 제외하고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느냐”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을 보존하는데 도민들의 협력을 끌어 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해제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 전국청소년연극제, 26일 전주에서 꿈나무 연극인들이 모여라~

전국청소년연극제가 스물두 돌을 맞아 전주에서 오는 26일 막을 올린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연극제는 다음달 5일까지, 오는 26일 전북 대표인 전주여고를 시작으로 8월 4일 제주 영주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소리문화전당 명인홀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등지에서 경연과 부대행사로 11일 간 펼쳐진다.

전국청소년연극제 집행위원회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극제는 ‘꿈의 비상’을 담은 연극축제’라는 주제로 전국 16개 시·도 예선을 거친 18개 팀이 단체부문 대상인 국무총리상 및 7개 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연기상(전주시장상) 등 28개 상훈을 두고 겨룬다고 밝혔다. 이번 연극제 기간 사전홍보와 기념을 위해 첫 부대행사인 ‘연극열기 뽐뽐!! 소극장 연극열전’을 시작으로 오는 12~14일에는 극단 T.O.D의 ‘그 해 여름’과 24~25일에는 사단법인 달란트마을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구성된다. 계속 이어지는 부대행사는 학교예술강사의 시선으로 연극이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는 지혜를 풀어보는 청소년 연극, ‘문화

예술교육을 말하다-TALK! TALK! 세미나, 전주시내 청소년 동아리가 직접 꾸미는 ‘꿈을 꾸는 우리! 비상(飛上)! 청소년 버스타킹’, 장재호 · 심완준 · 김수호 · 최무성 · 정민성 다섯 배우의 이야기를 푸는 ‘청소년을 위한 연극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연극의 계보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크형 연극 ‘청소년을 위한 낭만극장-해설씨, 희곡앙을 만나자!’, 경연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연극 캠프’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해외 교류 공연으로는 일본 청소년연극제 대상 팀인 ‘간토 다이이지 고등학교’의 초청공연이 8월 5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 청소년 연극공연의 수준을 체감하고 그 문화를 접해보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청소년연극제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활성화와 지역문화발전 기여를 위해 1997년 이래로 해마다 시행되며 20회차 서울대회와 지난 해 광주에 이어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전주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제22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집행위원회(063-276-9440)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진료비 등 소유자 부담비용 최대 10만원까지

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입양 시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후 입양에 소요된 치료비 등을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시 유기동물보호

센터(동물병원)로부터 입양한 소유자이며, 타 지역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는 입양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받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로 한정되며, 이 외의 항목(용품 및 사료구입, 동물등록비)은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부담한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며,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이상이 없는 지에 한해 7월말까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8월 중,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제8대 군산시의회

###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나무보다 숲을 보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